

 한국농어촌공사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일시	2022. 2. 4 (금) 11:00	배포일시	2022. 2. 4 (금) 11:00
담당부서	해외사업처 국제협력부	책임자	부장 손혁준(061-338-6521)
		담당자	차장 박기욱(061-338-6523)

농어촌공사, 감자원산지 볼리비아에도 K-농업 전파

○ K-농업 재배기술 전수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볼리비아 씨감자 생산체계 구축 및 생산 기술전수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구축해온 시설과 기자재를 볼리비아 정부에 인계(‘22.1.21)했다고 4일 밝혔다.

볼리비아는 감자의 원산지임에도 경작 가능한 지역이 국토의 3%도 되지 않아 소비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왔으며,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농촌인구의 빈곤율이 50%가 넘어 농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태이다.

농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시행기관인 공사는 사업 발굴에서부터 현지 프로젝트 실무자(PMC)들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PMC : Project Managment Consultancy의 약자로, 개도국 사업 현장에서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를 실무적으로 추진

이번 볼리비아 사업 역시, 기획·발굴단계에서부터 실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현지 농림혁신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이끌어냈다.

이번 사업의 PMC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볼리비아 코차밤바주 트라타시 지역에 양액재배*온실, 육묘**하우스, 시범포***를 갖춘 ‘감자연구혁신센터’를 구축했다.

*양액재배 : 토양을 사용하지 않는 재배 방법

**육묘 : 작물 재배나 번식에 이용되는 어린 식물을 기르는 일

***시범포 : 우량 품종을 선별하기 위해 변수를 통제해 우선 재배하는 곳

더불어, 센터에서 필요한 실험기자재, 농기계, 저온 저장시설 등 각종 기자재를 지원하고 재배와 수확 후 관리를 위한 8개 분야의 전문가 15명을 총 66개월간 파견해 농가 영농교육과 맞춤형 기술지도를 실시했다.

실제, 2021년 시범포 생산통계에 따르면 씨감자에 대한 종자 개량 및 기술 지원으로 ha당 씨감자생산량*은 2배 증가하고 수익**은 4,631달러가 늘었다.

*씨감자 생산량 : 2017년 6.4톤→2021년 12.3톤

**수익으로 환산한 금액 : 사업 전 \$2,410 → 사업 후 \$7,041

특히, 이번 사업으로 설립된 ‘한국-볼리비아 감자연구혁신센터(CNIP)’를 통해 씨감자 재배기술 연구와 농가 보급 시스템을 갖추으로써 일회성 원조가 아닌 개도국의 장기적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는 평가이다.

또한, 농촌진흥청 볼리비아 KOPIA* 센터에서 현지에 맞게 개량한 씨감자 재배기술을 볼리비아 농민들에게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기틀을 이번 사업을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부처간 협업의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KOPIA :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촌진흥청은 씨감자 기술전수 협업사업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에 추진하여 K-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원조사업 모델로서 전 세계에 확산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구축해온 시설을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볼리비아 정부에 공식 인수인계하는 기술 전수 서명식에서, 레미 곤잘레스 아틸라 농림부 장관은 “그동안 전수받은 한국의 농업기술 노하우가 볼리비아 경제발전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감자 재배 농민들의 소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기대를 표명했다.

김인식 사장은 “공사가 110여 년 동안 축적해온 농업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진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 분야 ODA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개도국에 농업기술을 전수해 K-농업의 외연을 넓히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I**목적**

- 한국의 선진화된 씨감자 생산체계 및 생산기술 전수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양국 협력강화
 - 농민조직(작목반)을 지원함으로써 감자 생산량 증대 및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

II**개요 또는 추진배경**

- 볼리비아는 ‘감자의 원산지’이나 경작 가능한 지역이 국토의 약 3% 수준
 - 씨감자 생산체계가 미흡하여 페루 등에서 씨감자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 씨감자 생산시설 확대 및 우량 씨감자 안전생산을 통한 감자산업 안정화 및 농업 생산성 강화 필요

III**협력사업 추진 내용**

- 시설구축 : 씨감자연구센터 구축
 - 양액재배온실, 육묘하우스, 시범포 조성(2.5ha) 등
 - 기자재지원 : 실험기자재, 농기계, 차량, 저온저장시설, OA 장비 등
 - 씨감자 생산 역량강화 교육, 초청연수 등

IV**주요 성과**

- 한-볼 감자연구혁신센터(CNIP) 신축, 조직 구성 및 인력배치(‘19.8)
 - 무병씨감자 생산, 보급용 감자 생산, 농민 보급 등을 위한 센터구축
 - 볼리비아 농촌개발부, 농림혁신청(INIAF) 주관으로 연구원 배치, 예산확보를 통한 자체운영 개시
- 씨감자 생산기술 전수로 원원종 생산(500kg), 원종(5톤) 생산(’21년 기준)